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연구

-폐품 소재를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박 소 라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연구
-폐품 소재를 중심으로-

문윤경 지도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박 소 라

인 준 서

박소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오늘날 사회는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속에서 인간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생산과 소비는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면서 지구와 인류의 위협하는 현실에 이르렀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해결해야 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재활용이라는 순환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술 전에서도 이러한 소재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여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과 의식의 개혁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듯 미술분야도 폐품 소재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가장 대표적인 사조인 ‘아상블라주(Assemblage)’가 등장하였다. 아상블라주는 ‘모으기’, ‘집합’, ‘조립’으로 다양한 물질들을 활용해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그 소재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성품이나 잡다한 물건을 모아서 만드는 작품을 말한다. 이 기법은 다양한 예술 분야와 어우러져 조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트 메이크업 분야와 접목시켜 하나의 예술 가치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도 사용됨으로써 좀 더 작가의 의도에 맞게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트 메이크업이 요구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트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오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폐품 소재를 활용하여 아상블라주의 조형적 기법과 특성을 살린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고, 기존의 한정된 오브제 영역을 탈피하고 일상생활 속 용품들을 장식적으로 활용해 아트 메이크업의 무한한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선행논문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였고, 다양한 폐품을 활용해 아상블라주의 기법과 특성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II는 인간의 경험과 잠재 의식을 통해 작가의 의도에 맞게 배열하는 환상적 집합 기법으로 일상성의 특성을 가진 소재를 활용해 아상블라주의 작품이 완성 되었으며, 스티로폼 볼, 옷걸이, 계란 껍질, 계란 판을 얼굴에 오브제로 부착하였고, 헤어의 조형적인 장식물을 표현하여 좀 더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III,IV 물체들을 나란히 배열하거나 차곡차곡 쌓아 표현한 축적 기법의 작품으로 작품III의 경우 우연적으로 색을 입힌 휴지를 헤어라인과 목선에 맞춰 한 소재의 반복적 리듬을 표현하고, 작품IV는 잡지라는 물질의 소재를 자르고 붙여 물질의 본 기능을 알아볼 수 없게 컬러감을 화려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V,VI는 구성적 집합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전자 부속품들을 나열하여 붙이거나, 깨트려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VII,VIII은 철편물의 집합 기법으로 고철이나 알루미늄, 철 소재를 가진 물체들을 압축하거나 배열하여 소재를 강조하였으며, 지나친 소비문화를 질타하는 일회용품을 헤어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좀 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 제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상블라주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더 깊게 분석하지 못하고 특성을 분류하는데 있어 모호함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남지만, 아상블라주라는 미술사조를 통해 환경오염이나 산업사회의 폐기물 처리 문제들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아상블라주 소재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이 표현되길 바라고, 모든 사물의 예술적 가치는 아티스트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더 폭 넓고 다양 소재의 연구가 더 이

루어지길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아트 메이크업	4
2. 아상블라주	19
III. 작품제작	39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39
2. 작품제작	42
IV. 결론	6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	41
<표 2>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43
<표 3>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46
<표 4>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49
<표 5>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52
<표 6>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55
<표 7>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58
<표 8> 작품 VII 디자인 이미지.....	61
<표 9> 작품 VIII 디자인 이미지.....	64

그림 목 차

<그림 1> 페이스 페인팅 1	7
<그림 2> 페이스 페인팅 2	7
<그림 3> 페이스 페인팅 3	7
<그림 4> 페이스 페인팅 4	7
<그림 5> 환타지 메이크업 1 “구체적 표현 방법”	9
<그림 6> 환타지 메이크업 2 “구체적 표현 방법”	9
<그림 7> 환타지 메이크업 3 “추상적 표현 방법”	9
<그림 8> 환타지 메이크업 4 “추상적 표현 방법”	9
<그림 9> 바디페인팅 1 “생존적 표현 방법”	11
<그림 10> 바디페인팅 2 “구체적 표현 방법”	11
<그림 11> 바디페인팅 3 “추상적 표현 방법”	11
<그림 12> 바디페인팅 4 “퍼포먼스 바디 페인팅”	11
<그림 13> 회화적 기법 1	13
<그림 14> 회화적 기법 2	13
<그림 15> 액션 페인팅 기법	13
<그림 16> 디지털 페인팅 기법	13
<그림 17> 오브제 기법 1	15
<그림 18> 오브제 기법 2	15
<그림 19> 에어브러쉬 기법 1	16
<그림 20> 에어브러쉬 기법 2	16
<그림 21> UV발광 기법	17
<그림 22> 일루미네이션 기법	17

<그림 23> 그래픽 기법 1	18
<그림 24> 그래픽 기법 2	18
<그림 25> 사마라스 “무제상자 3”	22
<그림 26> 조셉 코넬 “상자안의 새”	22
<그림 27> 조셉 코넬 “Medici Slot-machine”	22
<그림 28> 아르망 “물병쌓기”	24
<그림 29> 아르망 “Arteriosclerose”	24
<그림 30> 케메니 “형태로 된 사고”	25
<그림 31> 네벨슨 “왕조의 물결”	25
<그림 32> 세자르 “Compression de Motorcycle ”	26
<그림 33> 챔벌린 “Dolores James”	26
<그림 34>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32
<그림 35> 마르셀 뒤샹 “병걸이”	33
<그림 36> 마르셀 뒤샹 “샘”	34
<그림 37> 아르망 “쓰레기 상자”	36
<그림 38> 아르망 “장기 주차장”	36
<그림 39> 세자르 “박쥐”	37
<그림 40> 세자르 “자동차 압축”	37
<그림 41> 세자르 “압축”	38
<그림 42> 작품 I -“Galaxy”	44
<그림 43> 작품 II -“줄타동시(峯啄同時)”	47
<그림 44> 작품 III-“Spring time”	50
<그림 45> 작품 IV-“Corlor fire”	53
<그림 46> 작품 V -“Electronic”	56
<그림 47> 작품 VI-“Flash”	59

<그림 48> 작품Ⅶ-“Stuck”	62
<그림 49> 작품Ⅷ-“Gold clockwork”	65

I. 서론

현대사회는 디지털 산업의 발달과 대량 생산 산업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 가속화된 사회현상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빠른 사회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이 잦아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일상용품마저도 그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편의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회용품들의 소비가 날로 많아지며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점점 치솟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재활용이라는 개념 인식을 가져왔으며, 세계적으로 환경 및 자원문제가 이슈화되며 일상 속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새롭게 작품의 소재와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버려지는 일상 용품들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현대 미술 작가들은 '아상블라주(Assemblage)'라는 미술사조로 가치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창조해냈다. 아상블라주의 의미는 '모으기', '집합', '조립'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활용해 3차원적인 조형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성품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을 말한다¹⁾.

아상블라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기희(2011)²⁾의 '콜라주, 아상블라주 기법에 의한 화예조형 표현연구'에서는 나뭇잎과 나뭇가지에 아상블라주의 조형적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화예조형 작품을 제작하고, 권문순(2008)³⁾의 '목재의 아상블라주 기법을 이용한 조형성 연구'는 버려진 목

1) 이송준 (2010), '누보레알리즘의 표현기법으로 아상블라주에 대한 연구-연구자 작업 중심으로' 이송준,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

2) 양기희 (2011), '콜라주, 아상블라주 기법에 의한 화예조형 표현연구', 한국꽃예술학회, 한국꽃예술학회지

3) 권문순(2008), '목재의 아상블라주 기법을 이용한 조형성 연구', 영남대학교, 석학위논문

재를 활용해 입체적인 목재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수진(2013)⁴⁾ ‘현대 화훼디자인의 예술화 경향과 조형적 특성’에서는 아상블라주 특성의 소재를 활용하여 화훼디자인의 오브제 영역을 더 넓혀주었으며, 양진숙 외 1명(2011)⁵⁾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버려지는 옷이나 가방등의 소재들로 다른 옷을 제작하여 제 기능을 다한 물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아상블라주가 접목되어 하나의 융합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아상블라주 기법은 다양한 예술 분야와 어우러져 오브제의 조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아트 메이크업 분야와 함께 접목하여 예술 가치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트 메이크업은 기존의 정형화된 메이크업과는 달리 창의적인 작업으로 독창적인 예술로서 조형적인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⁶⁾, 기존의 아트 메이크업에 쓰인 소재와 아트메이크업과 관련된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아트 메이크업 소재의 제한을 느낄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아트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오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상블라주의 조형적 특징과 소재를 활용하여 기존의 아트 메이크업의 한정된 오브제 영역을 탈피하고, 비예술적 오브제인 일상생활 속 용품들을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여 새로운 아트 메이크업의 무한한 디자인을 제시하여 개성있고 창조적인 아트메이크업의 작품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제작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사물과 버려지는 용품들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소비보다 폐품을 소재로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폐품 소재에서 오는

4) 이수진(2013), ‘현대 화훼 디자인의 예술화 경향과 조형성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양진숙 외(2011),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6) 김민정 외1명 (2012), ‘현대 미술이 응용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Vol.18 no.3, p.59

신선함과 의외성으로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오브제의 영역을 보여주는데 필요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상블라주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 논문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였으며, 아상블라주 작가의 작품 및 아상블라주 기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표현 특성과 소재를 분석하며, 예술적 가치가 없는 일상용품 또는 기존의 기능을 상실한 사물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고정관념을 탈피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 8개를 제작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아상블라주 기법의 다양한 작품을 연구하고 작품 제작을 위해 아트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및 종류 그리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알아본다.

둘째, 아상블라주의 개념 및 아상블라주의 기법과 특성을 연구하고, 대표적인 아상블라주 작가와 작품을 분석한다.

셋째, 아상블라주의 기법과 특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폐품 소재를 활용하여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

1)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및 종류

(1)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아트 메이크업은 'Art'와 'Make-up'을 접목시킨 것으로, 일반적인 메이크업이 타고난 자신의 용모를 지역, 시대, 문화적 특성의 범주 내에서 규정되어진 미의 개념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해서 꾸미는 작업⁷⁾인 반면 아트 메이크업은 작가의 의도에 맞게 디자인하여 인체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아트와의 결합으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인체에 표현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아트 메이크업은 색,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어떠한 제한 없이 아티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더불어 외적인 미의 효과까지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아트 메이크업이 가지는 추상적인 이미지는 다양한 소재와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⁸⁾. 최근의 아트 메이크업은 헤어, 장식, 의상과의 조화로운 토탈 코디네이션(Total Coordination)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⁹⁾. 현대 아트 메이크업은 표현의 방식과 종류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중시하여 많은 예술사조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며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이나 다양한 소재를

7) 한명숙 (2007), 마귀아쥬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p 28

8) 김지은 (2007). "양리 마티스 작품을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10

9) 김양은 외 3인 (2009). ART MAKE UP, 파주, 광문각, pp 11-12

활용한 조형적 특성을 가진 아트 메이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트 메이크업의 종류

아트 메이크업의 종류는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환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으로 나뉘며 아트 메이크업과 관련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각기 다르게 분류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박주영(2013)¹⁰⁾논문과 신원선(2012)의 논문에 기술되어진 아트 메이크업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¹¹⁾. 위의 논문에 따르면 인체를 8등신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으며, 페이스 페인팅은 신체의 13%로 얼굴 중심의 페인팅으로 표현한다. 환타지 메이크업은 신체의 25%를 차지하며 주로 상반신 위주의 작품을 표현한다. 이는 토털 코디네이션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작가의 작품 성향에 따라 장식적 효과도 부여하며 다양한 오브제를 통한 연출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100%를 활용하는 바디 페인팅은 전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특한 작품의 세계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대중의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다양한 퍼포먼스에 많이 활용된다.

① 페이스 페인팅

얼굴중심으로 하는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은 <그림1>, <그림2>와 같이 물감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듯 작은 부위에 그리거나 얼굴 전체에 그리는 형태로 아름다움을 위한 작업이기 보다는 아트적인 부분이 강조된 표현 방법이다. 표현방식이 자유로워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디자인 변화에 따라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고 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국기, 로고나 심벌

10) 박주영 (2013),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의 자연 유기적인 구조 형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신원선 (2012), “아트 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11

(symbol) 마크 등을 그려 넣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흥을 돋는 역할을 한다¹²⁾.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르러 각종 이벤트, 연예계, 광고, 연극, 영화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¹³⁾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운동 경기 응원 시에도 페이스 페인팅을 즐기게 되었다(그림3). 이뿐만 아니라 실험정신이 강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에도 <그림4>처럼 페이스 페인팅을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대중의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최근에는 하나의 문화로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오인영 외 2인 (2010). Art Make Up Design, 서울, 훈민사 pp 10-11

13)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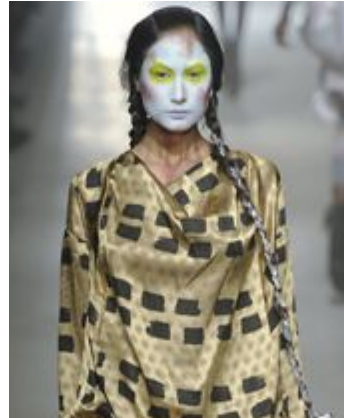
<그림 1> 페이스 페인팅 1
(<http://naver.com/PostView>, 2014.5.5)



<그림 2> 페이스 페인팅 2
(<http://naver.com/PostView>, 2014.5.5)



<그림 3> 페이스 페인팅 3
(<http://www.ameli.com>, 2014.5.5)



<그림 4> 2013 F/W Paris
비비안 웨스트 레드라벨 컬렉션
(<http://http://www.style.co.kr/collecti>
on, 2014.5.5)

② 환타지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의 한 형태인 환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은 상반신 위주의 작업으로, 여러 가지 펄, 아쿠아 컬러, 아쿠아 크림 등 다양한 특수 재료를 사용하여 추상적이고 상상속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 화려하고 과장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메이크업 방식이다.

환타지 메이크업을 통한 표현 방법에는 구체적 표현과 추상적 표현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구체적인 표현은 <그림 5>, <그림 6>와 같이 실물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그림 7>, <그림 8>과 같이 인어, 용, 천사, 감정 등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¹⁴⁾. 환타지 메이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모티브는 물, 불, 나비, 꽃 등의 자연적인 요소가 많이 사용 된다¹⁵⁾.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지 생각 한 후 주제를 결정하고, 작가에 따라 기존의 형상화 되어있는 것으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¹⁶⁾. 이렇듯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양한 재료와 표현방법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14) 강현신 (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2

15) 김영희 (2001). 토털메이크업, 서울, 정문각, pp 130-131

16) 남은선 (2009).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7



<그림 5> 환타지 메이크업 1
“구체적 표현 방법”
(<http://naver.com/kachi6292>,
2014.5.5)



<그림 6> 환타지 메이크업 2
“구체적 표현 방법”
(http://daum.net/_blog,
2014.5.5)



<그림 7> 환타지 메이크업 3
“추상적 표현 방법”
(<http://naver.com/hermoso2079>,
2014.5.5)



<그림 8> 환타지 메이크업 4
“추상적 표현 방법”
(<http://daum.net/mingkylove/9935686>,
2014.5.5)

③ 바디 페인팅 (Body painting)

바디 페인팅은 바디와 페인팅의 합성어로 인체에 디자인하고 채색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작가의 디자인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¹⁷⁾. 바디 페인팅은 인간이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생존을 목적으로 행한 행위 중 하나이며, 생존 경쟁시대에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 또는 위협의 대응하는 수단으로 행하면서 유래되었다¹⁸⁾(그림9). 현대의 바디 페인팅은 신체예술로써 일회성이고 보존되지 않는 단점을 지녔지만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가능하다.

바디 페인팅의 주제는 <그림10>과 같이동물, 꽃, 바다, 태양 등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거나 기하학적, 추상적인 디자인과 내면세계, 상상의 세계, 관념, 사상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점이나 이슈를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¹⁹⁾(그림11). 바디 페인팅은 신체의 곡선과 면, 골격 등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몸 위에 표현하는 것으로 인체에 따라 형태가 변하며 이뿐만 아니라 조명과 음악, 의상 또는 소도구를 활용하여 주제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예술적 부분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한다²⁰⁾(그림12).

17) 이규리 (2011). “입체주의적 플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3-44

18) 강대영 (1999).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p.255

19) 강현신 (2011). 상계서, p.13

20) 이규리 (2011). 상계서, pp.43-44



<그림 9> 바디페인팅 1
“생존적 표현 방법”

(<http://www.superstock.com/stock-photos-images/1850-10661>, 2014.5.12)



<그림 10> 바디페인팅 2
“구체적 표현 방법”

(<http://gomaver.tistory.com/285>, 2014.5.12)



<그림 11> 바디페인팅 3
“추상적 표현 방법”

(<http://funnyartpictures.com>, 2014.5.12)



<그림 12> 바디페인팅 4
“퍼포먼스 바디 페인팅”

(<http://passion4travel.tistory.com>, 2014.5.12)

2)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기법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20세기에는 방법과 재료의 발달로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제품들이 생산되어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현대에 나타나는 아트메이크업의 기법은 이규리(2011)의 선행 논문을 통해 크게 회화적 표현기법, 오브제 표현기법,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조명 기법, 그래픽 기법으로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1)회화적 기법

아트 메이크업의 회화적 기법은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며, 아트 메이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²¹⁾. 이 기법을 페인팅 기법이라고 한다.

회화적 기법은 메시지 전달이 용이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대상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정확하게 형상화 하는 것으로 컬러 물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료와 컬러의 사용으로 예술가의 색채감각이나 취양 등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²²⁾.

표현방법으로는 회화적 페인팅 기법,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 기법, 디지털 페인팅(Digital Painting) 기법이 주로 있으며, 회화적 페인팅 기법은 사실적인 묘사로 대상을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다²³⁾(그림13),(그림14). 두 번째, 액션 페인팅 기법은 <그림 15>와 같이 우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위해 물감을 던지거나 흩뿌리는 방법을

21) 이현주 (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이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4

22) 이지영 (2013).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연구-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23) 상계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 페인팅 기법은 2,3차원의 이미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하여 디지털화 시키는 기법이다²⁴⁾(그림16).



<그림 13> 회화적 기법 1

([http://blog.naver.com/repplica?Redirect=Log&logNo=130142542882,](http://blog.naver.com/repplica?Redirect=Log&logNo=130142542882)
2014.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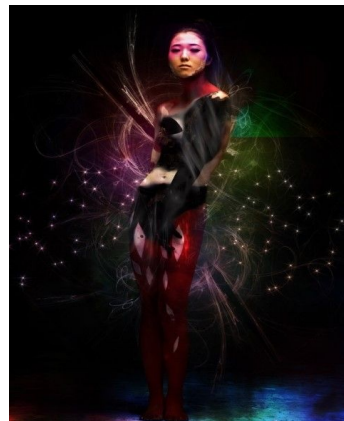
<그림 14> 회화적 기법 2

([http://blog.naver.com/repplica?Redirect=Log&logNo=130142542882,](http://blog.naver.com/repplica?Redirect=Log&logNo=130142542882)
2014.5.18)



<그림 15> 액션 페인팅 기법

([http://www.craigtracy.com/,](http://www.craigtracy.com/)
2014.5.18)



<그림 16> 디지털 페인팅 기법

([http://blog.naver.com/0429s?Redirect=Log&logNo=10160620993,](http://blog.naver.com/0429s?Redirect=Log&logNo=10160620993)
2014.5.18)

24) 박천신 (2008), 디지털 아트 페인팅, 서울, 한언, p.6

(2)오브제 기법

오브제 기법은 그리고 칠하는 개념의 페인팅 기법과 기본적인 메이크업의 재료를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오브제는 라틴어의 'objectum'에서 유래된 말로 '앞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의미이며,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⁵⁾. 오브제는 질감 표현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 질감은 형태, 색채와 함께 조형요소 중 하나로 실제 물체의 표면이 갖는 특성이나 안료의 성질, 물적 대상의 양감 등을 가지고 촉각, 시각 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를 말한다²⁶⁾.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조형적 오브제는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적합하다면 어떠한 것도 소재로 사용 가능하며, 대체적으로는 종이류, 보석류, 패브릭, 깃털, 금속류, 인조 속눈썹, 비닐 등이 있다²⁷⁾.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하여 비 일상적이고 특수한 재료의 이질적인 소재를 메이크업 디자인에 도입하여 조형적이고 예술적인 창조적인 조형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²⁸⁾. 소재분야의 확장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그림17,18)

25) 강명주 (2008), “눈 화장에 따른 형태 변화와 이미지 연구-10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

26) 임정미 (2006), “바디아트의 질감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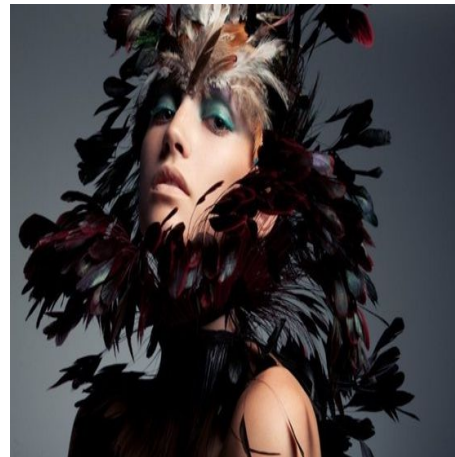
27) 이규리 (2011), 전제서, pp.47-48

28) 이유나 (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6



<그림 17> 오브제 기법

(<http://blog.naver.com/qudtlsdusdn0?Redirect=Log&logNo=50183955542>,
2014.5.18)



<그림 18> 오브제 기법

(<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37044048>,
2014.5.18)

(3) 에어브러쉬 기법

에어 브러쉬(Airbrush) 기법이란, 공업용 도색기계인 컴프레셔(compressor)를 이용하여 공기의 압력으로 에어브러쉬 건 (Airbrush-gun)을 통해서 원하는 부위에 물감을 분사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²⁹⁾. 이 기법은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기법으로 최근 아트 메이크업 작업 시 에어브러쉬의 사용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에어브러시는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손으로 직접 칠하는 것 보다 정교하고 깔끔한 그래픽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³⁰⁾

에어브러쉬 작품 제작 시 가장 숙련을 요하는 부분은 스텐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명 필름이나 종이 등에 미리 원하는 디자인의 문양을 그려 넣은

29) 이지영 (2013),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연구-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6-17

30) 김영경 외 (2004), “바디 아트의 표현 형태 및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논문집 Vol.26 p. 303

후 오래난 부분을 인체에 밀착시켜 에어브러시를 분사해주어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³¹⁾. 또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레이스나 나뭇잎, 도형자 등도 좋은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작품 성격이나 디자인에 맞게 적당한 재료를 적용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³²⁾. 새로운 재료를 활용함에 따라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다.(그림 19),(그림 20)



<그림 19> 에어브러쉬 기법 1

(<http://cafe.naver.com/ydpat3323/529>, 2014.5.18)



<그림 20> 에어브러쉬 기법 2

(<http://cafe.naver.com/ydpat3323/529>, 2014.5.18)

(4) 조명 기법

조명 기법은 <그림21> UV 발광기법(UV color & Black light Technique)과 <그림22> 일루미네이션 기법(Project Illumination)으로 나눌 수 있다³³⁾.

UV의 발광기법은 페인팅 물감과 빛을 결합한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UV 발광 물감은 일반 조명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블랙라이트에서 더욱 선

31) 강현신 (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5-36

32) 김영숙 외 (2006), ART MAKE-UP, 서울, 예림, p.73

33) 이지영 (2013), 전계서, p.19

명한 색상을 나타내며, 이 기법은 주로 무대 공연이나 쇼 형태에서 주로 많이 사용 된다³⁴). 공연을 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UV물감의 성질과 효과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UV라이트가 작품에 반응할 수 있는 거리 등을 계산하여 작업에 임해야한다³⁵).

일루미네이션 기법은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여 실제 사물의 모습이나 무늬를 몸에 투영시켜 신체 위에 그 사물의 빛 또는 그림자를 얻는 기법이다.³⁶) 영상물을 투사하여 연출하는 작업이라 작업 환경이 까다롭지만 회화적 테크닉을 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 UV발광 기법
(<http://blog.naver.com/h3133712>,
2014.5.18)



<그림 22> 일루미네이션 기법
(<http://cafe.naver.com/yichengpark>,
2014.5.18)

34) 최민령 (2007), “바디페인팅의 회화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독립 장르 구축방향물색”,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35) 강대영 (1999), 전계서, p.260

36) 이지영 (2013), 전계서, p.19

(5) 그래픽 표현기법

그래픽 표현기법(Graphic Technique)은 추상적인 대상을 형상화 하는 기법 중 하나로 그래픽의 어원은 그리스어 그리피코스(Graphikos)라는 ‘쓴다’, ‘도식화 한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듯한 묘사를 의미하며, 도형이나 기호를 뜻하기도 한다³⁷⁾.

컴퓨터 기술이 핵심이 되며 그래픽 기법은 형상의 추상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하며 선의 나열, 흑과 조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로 찍는 행위 등이 있고 색의 배열 또한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하여 이미지를 표현 한다³⁸⁾. 그래픽 기법을 사용한 작품 <그림23>, <그림24>는 색채 조절 및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신체적인 결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23> 그래픽 기법

([http://blog.naver.com/comphictist?direct=Log&logNo=50033550208,](http://blog.naver.com/comphictist?direct=Log&logNo=50033550208)
2014.5.18)



<그림 24> 그래픽 기법

([http://blog.naver.com/comphictist?direct=Log&logNo=50033550208,,](http://blog.naver.com/comphictist?direct=Log&logNo=50033550208)
2014.5.18)

37) 광대웅 (1997), 디자인·공예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소, p. 67

38) 최민령 (2007), 전계서, p.35

2.아상블라주

1) 아상블라주의 개념

아상블라주는 집합, 조립의 뜻으로 평면적인 2차원의 회화에 3차원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이나 폐품 따위를 조립해서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³⁹).

아상블라주라는 말이 미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985)에 의해서이다⁴⁰). 그는 당시 자신의 작품에 종이조각이나 서로 다른 오브제들을 붙여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와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의 꼴라쥬(Collage)작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하였다. 그 후로 아상블라주라는 말은 다른 작가들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오브제를 활용하여 3차원의 꼴라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⁴¹).

하지만 아상블라주가 관심과 이목을 갖게 된 것은 1961년 뉴욕 근대 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에서 윌리엄 자이츠(William C.Seitz)가 개최한 ‘The Art of Assemblage’라는 전시회에서이다. 이 전시회의 기획자 윌리엄 자이츠는 아상블라주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물체의 집적(Accumulation)이어야만 하고, 자르거나 찢어진 종이조각들, 사진, 직물조각, 나무, 메달, 조개, 돌, ... 인형과 마네킹의 부분들 따위를 한곳에 한군데에 집합시킴으로서 만들어지는 예술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⁴²).

39) 조영진 (2004), “현대미술의 Assemblage양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

40) 박소연 (2007), “오브제를 활용한 미술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5

41) 이정웅 (1999), “현대 미술속에 나타난 오브제(Object)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3

42) H.H Arnason (1968), History of Modern Ar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 567

아상블라주는 다양한 일상의 물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콜라주의 기법과 흡사하다 할 수 있지만 꼴라쥬나 빠삐에 꼴레(Papier Colle)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로서 집합과 병치, 구성과 절단, 포토 몽타쥬 등과 같은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다⁴³⁾.

일반적으로 아상블라주 작가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주울 수 있는 폐품, 기계의 잔해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었으며, 사람들 눈에는 더러워 보이는 것들을 이용해 소비문명을 반영해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든 것이다. 원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어버린 폐품들은 작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강한 상징성을 띠면서 작가의 생각을 반영했다⁴⁴⁾. 또한 조형 논리는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예술적인 오브제로 전환시켜 작품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등의 이전의 기법에 반대하여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제시하여 독특한 오브제의 논리를 입증하는 것이다⁴⁵⁾. 이를 통해 작가는 모든 사물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상블라주 기법 및 특성

(1) 아상블라주 기법

아상블라주는 사물들을 한 곳에 모아 미술 작품을 만들어도 그 사물의 속성을 잃지 않는다. 또한 예술 창작과는 무관한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을 작품 창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상블라주 기법은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며 시각적으로 유사한 유형들을 묶어 살펴보면 환상적 집합, 축적, 구성적 집합, 철폐물의 집합 등의 방법이 있다.

43) 조영진 (2004), 전제서

44) 바이영, 율음, 한혜성, 옴김 (2009), 지도로 보는 세계 미술사, 서울, 시그마북스, p 347

45) 곽은미 (2011), “초현실주의에 있어서의 오브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9

① 환상적 집합

인간의 잠재의식에서 표현되는 모든 상상력을 일으켜 인간 내부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물체를 집합시킨 것이 ‘환상적 집합’이라 한다. 이처럼 예술가들은 심리적 상태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연상시키는 물체를 나열하거나 원시 미술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느낌으로써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다다이즘(Dadaism)이나 쉬르레알리즘(Surrealism)의 작가들의 경우 상징적 집합으로 상자에 호기심을 가졌다. 사마라스 (Lucas Samaras, 1936~)는 환상적이고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상자를 이용하여 상자 안에 사실적 매체를 사용하였다. <그림25>은 1966년 사마라스가 표현한 상자로서 이 상자들은 에로틱한 감정과 함께 침묵 속에 가뒀진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⁴⁶⁾. 그는 서로 상관되지 않는 새, 나침반, 조개, 단순한 이미지의 사진등으로 상자를 채워넣어 놀라운 집합의 작품을 보여준다⁴⁷⁾. 사마라스와 다르게 코넬(Joseph Cornell, 1903~1972)은 연극이나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심취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문학적 향수와 극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그의 작품 <상자 안의 새>는 초현실주의적 환상 속에 구성주의의 구조적 엄격함을 혼합하였으며, 그 나름대로 독특하게 풀라쥬화한 것이다⁴⁸⁾(그림 26). 그의 작품 <그림27>은 「메디치가의 자동판매기(Medici Slot-machine)」로 인쇄된 그림, 사진조판, 지도조각, 나침반, 나무블럭, 공, 거울, 대리석 등을 사용하여 추억이 담긴 오브제가 갖는 이미지들의 병치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상징적이거나 초현실주의적 구조로 이루어진 환상적 집합은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경험이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고 아름답고 시적인 주제를 주로 사용하였다.

46) 심지섭 (2004), “실내디자인 재료에 있어 오브제(object)활용에 관한 연구-아셈블라주(Assemblage)의 영향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1~52

47) 윤경희 (1985), “현대조각을 통해서 본 아셈블라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22~23

48) 조영진 (2004), 상계서, pp 7~8



<그림 25> 사마라스, “무제상자 3”1966
 (<http://naver.com/yht8110>,
 2014.4.28)



<그림 26> 조셉코넬, “상자안의 세”1943
 (<http://naver.com/moonlove26>,
 2014.4.28)



<그림 27> 조셉코넬, "Medici Slot-machine"1942
 (<http://naver.com/purruraa>, 2014.4.28)

② 축적

물건을 모아서 쌓는 '축적 기법'은 정크아트의 기법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일용품을 유리 상자 안에 넣거나 부조 형식으로 배열하여 전개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요소를 집적한 기법이다⁴⁹⁾. 일반적으로 동일한 물체를 한곳에 모으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강박 관념을 심어주어 그 물체를 한번 더 보도록 강요한다. 축적의 대표적 작가인 아르망 (Fernandez Arman, 1928~2005)은 대량 생산된 동일한 물체를 증식시켜 획일화된 사회 구조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뒤샹(Marce Duchamp, 1887~1968)의 레디메이드(Ready Made)가 사물의 개념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르망에게 있어서 오브제는 단순한 오브제 집적으로부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⁵⁰⁾(그림28),(그림29).

오브제의 집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재를 집적함으로써 발달된 공업사회의 획일화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은 오브제 자체가 다른 이미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오브제를 더욱 강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에 의해서 사물이 사물의 성질을 파기하는 변화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량의 사물들을 모아 새로운 이미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⁵¹⁾ 이와 같이 오브제의 집적은 단순한 작품의 소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에 의한 사물의 조형적 리듬이 본질적으로 작품을 구조를 변화 시킨다

49) 계간미술 편 (1981), 현대미술 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p 159

50) 심지섭 (2004), 전제서, p 52

51) 권문순 (2008), "목재의 아상블라주(Assemblage)기법을 이용한 조형성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



<그림 28> 아르망,
“물병쌓기”1961
(http://naver.com/park_parker,
201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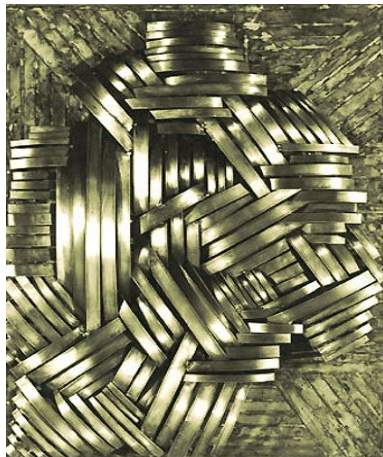
<그림 29> 아르망,
"Arteriosclerosis"1961
(http://naver.com/park_parker,
2014.5.3)

③구성적 집합

구성적 집합이라는 것은 회화적인 선이나 무늬가 아니고 못, 판자, 쇠 조각 등의 현대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체를 응용하여 작품 제작의 물질성을 강조한 것을 말한다. 다수의 물질적 단위가 집합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무한하게 확산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케메니(Zoltan Kemeny, 1907~1965)의 「형태로 된 사고」와 같이 가지각색의 모양의 쇠조각을 용접하여 제작한 조각을 보면 그들 단위가 집합되고 무한히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⁵²⁾(그림30). 언뜻 보기에는 회화적인 구성처럼 보이지만 재료에 대한 물질성의 강조가 본래의 조각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것은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에서 벗어나면서 장식적 리듬의 반복이 아닌 현대적 산물인 철이나 나무 조각 등에서 가질 수 있는 단편과 확산

52) 이종각(1973), 조소의 개념, 미술기법 시리즈 12, 서울, 미조사, p 25

을 통한 부조의 요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⁵³⁾.



<그림30> 케메니,
“형태로 된 사고” 1962
(<http://www.artregister.com/ZimmermannCatalogue/Sculpture/KemenyKristal.html> 2014.5.20)



<그림31> 네벨슨, “왕조의 물결”
1961-1963
(<http://farisfaris.com/louise-nevelson/>, 2014.5.20)

④ 철 폐물의 집합

현대의 자연은 감상적이고 목가적인 근대의 자연과는 달리 양산되는 공업 생산품이 넘쳐나는 도시의 자연이다.

철 폐물의 축적은 현대 소비사회의 산물인 철 폐품이나 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고철과 용접기, 자동차와 압축기 사이에서 새로운 조형방법을 발견하는 경향이다⁵⁴⁾. 전후 미술가들이 철재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고철 선풍’ 때문인데 이것은 아상블라주 기법에 꽤 잘 어울리는 소재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철의 선풍과 동시에 금속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⁵⁵⁾. 영국의 비평가 알로웨이 (Lawrence Alloway)는

53) 심지섭 (2004). 전계서, p 53

54) 권문순 (2008). 전계서, p 5

55) 심지섭 (2004). 전계서, p 54

1961년 「건축 디자인」지에 “폐품 문화는 도시의 예술이며 그 원천은 도시의 폐기물들이다”라고 폐품 예술에 대해 언급했다⁵⁶⁾.

폐품 예술에 있어서 폐품은 새로운 조각이라 할 수 있는 ‘조형상’의 새로운 소재로 사용되었고, 오토바이의 잔해를 누르고 압축하여 조립한 작가인 세자르 (Cesar Baldaccini, 1921 ~ 1998)의 작품과 챔벌린(John Chamverlain, 1927~2011)의 「Dolores James」작품은 1960년대의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낸 좋은 사례가 되었다.(그림32),(그림33)⁵⁷⁾. 이와 같이 산업 사회의 산물인 자동차나 철재 폐품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조형물을 창조해 내는 것이었다.



<그림32> 세자르, “Compression de Motorcycle ”1960
(<http://www.artvalue.com/>,
2014.5.3)



<그림33> 챔벌린, “Dolores James”1962
(<http://blog.naver.com/yc510?Redirect=Log&logNo=40037421473>,
2014.5.3)

56) 조영진 (2004), 전계서, p 10

57) 심지섭 (2004), 전계서, p 54

(2)아상블라주 특성

아상블라주 기법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오브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물체의 개체성을 상실시킴으로써 물질성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우연성으로 인해 추상적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이미 존재하는 형상들을 이용하여 그 형상들이 주는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형태를 구성적 요소로써 활용하는 것과 형태가 주는 연상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있다⁵⁸⁾. 따라서 아상블라주 기법은 물질성, 일상성, 우연성, 사회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물질성

아상블라주 기법에 이용된 재료들의 물질성 강조를 위해서는 먼저 개체성의 상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상블라주는 오브제를 조형적 표현에 이용함으로써 독립적인 존재성과 현실적 의미를 잃게 하였다⁵⁹⁾.

작가가 형식적인 의도로 오브제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오브제의 크기, 형태, 질감, 색채 등과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쓰이는 방법인 자르기, 태우기, 꿰매기, 톱질하기, 압축시키기, 못질하기, 용접하기 등으로부터 산출된 바탕의 관계, 물질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⁶⁰⁾. 그 재료들은 재료가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물질성의 관심은 현실적 이미지의 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꼴라쥬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평론가 미셸 라곤(Michel Ragon)은 꼴라쥬의 특성을 논하면서 물질성의 문제에 대해 “지하철 표 현장이 캔버스에 붙여지자 그 표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그 표는 일상의 테두리에서 빠져나와 추상적인 형태 및 색채와 이웃해 자리 잡는 또 하

58) 권문순 (2008), 전계서, p.5

59) 권문순 (2008), 상계서.

60) 이정웅 (1999), 전계서, p.18

나의 새로운 영역에 들어선다. 작품 속에 한 장의 표가 붙여졌든, 콤포지션(Composition)이 기괴한 물체들만으로 되었든, 예술가가 한 자리에 모아놓은 이들 갖가지 물체는 평상시의 그들의 개체성을 잃고 만다. 물체들은 그들의 예술적인 조건으로부터 해방시켰을때, 이들 물체는 색소나 잉크 또는 목탄 등과 동격이 된다는 말이다”라고 언급하였다⁶¹⁾.

이와 같은 물질성의 대한 관심은 현실적인 이미지의 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꼴라쥬 기법에서부터 시작된 미래파 작가인 프랑폴리니(Enrico Prampolini)와, 다다의 작가이며 최초의 물질집합 미술가라고 불리는 슈비터즈의 추상적인 릴리프 작품에서 물리적 현실성을 추구한 타틀린(Vladimir Tatlin)등의 작품을 비롯하여 최초로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아상블라주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뒤뷔페(Jean Dubuffet, 1901.1~1985)의 작품, 아르망의 축적된 작품 세자르의 오브제 압축 작품 등에서 물질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⁶²⁾.

②일상성

일상성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품들을 집적하거나 병렬하거나 여러 물체를 엄청나게 쌓아올림으로써 일상적인 것과 연결하는 아상블라주 기법의 특성이다⁶³⁾.

아상블라주는 기성제품 뿐만 아니라 환경이 곧 예술 작품이 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다.

아상블라주에 사용된 오브제는 레스티니(P. Restany)의 표현을 빌면 “우리들 눈 앞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일상적인 현대의 모든 것을 높이 사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따라서 그것들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 되어있는 물체

61) Micle Ragon(1963)

62) 조영진 (2004), 전계서, pp.10~11

63) 권문순 (2008), 전계서, p.8

들이었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 예술 작품의 소재가 새로워진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예술의 존재 방법이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⁶⁴).

그리고 아상블라주는 오브제가 하나의 수로 존재할 때 보다 더 강한 일상의 의미를 지나게 되어 예술과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결속시킨다. 또한 일상의 모든 물체를 예술의 문맥으로 끌어올림으로 인한 예술과 생활의 동일화는 이제까지의 상식을 뒤바꾼 새로운 예술작품의 존재를 주장한다⁶⁵).

③우연성

우연성은 우연히 배열된 것이 인위적으로 배열된 것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우연의 미학에 기초를 둔 작업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철판의 압축 작품도 압축할 때 여러 군데의 색채를 맞추어 부품을 배치시켰지만 압축으로 인하여 그것 역시 우연적 상태로 찌그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연히 집적된 사물의 형태가 압축됨으로써 사물과 동떨어진 이미지를 만들 때 최대의 우연성이 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⁶⁶).

현대미술 속에 우연의 개념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우연의 개념이 현대미술 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독창적인 상당수의 작품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우연의 개념을 현대미술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킨다면 현대미술의 존재 여부도 의심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작품 제작 방법에 우연의 개념을 사용하여 우연의 효과를 얻고자 했던 아상블라주의 대표적 작가로는 레디메이드의 집적과 축적을 통해 작품을 제작한

64) 나진숙 (1986), "Assemblage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6~48

65) 조영진 (2004), 전계서, p 21

66) 권문순 (2008), 전계서, p 6

아르망과, 움직이는 기계의 연작을 제작한 텅겔리(Jean Tinguely), 자동차의 폐기물을 압축해서 조각 작품으로 제작하였던 세자르 (B. Cesar)등이 있다⁶⁷⁾.

이와 같이 이상블라주는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우연성을 도입해 제작 방법에 따라 갑작스럽게 마주하면서 생기는 아이러니한 유머를 갖게 된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물을 다량으로 집합시킨다는 것이 어딘가 강박관념을 연출 시킬지도 모르지만 이상블라주는 오히려 유머를 느끼게 해준다⁶⁸⁾.

이 유머는 우연히 집합된 사물이 그 형태에서 사물과 동떨어진 이미지를 보여줄 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④사회성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고철이나 폐기물을 사용한 이상블라주는 산업사회 현실의 반영을 의미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후의 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소비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폐물, 공업용 생산품 등의 오브제를 모아서 작가들의 시각으로 새롭게 제시한 이상블라주는 도시 문명의 사회를 하나의 ‘새로운 자연’, ‘현대적인 자연’으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⁶⁹⁾. 새로운 자연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이상블라주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었던 것이며, 예술은 현실에 간혀진 현상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제나 그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었다⁷⁰⁾.

이와 같이 산업 사회의 다양한 공업 폐기물들을 집적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작품을 제시하였으며 미술은 그 사회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해주고 인위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해방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도시 환경의 고도로 일반화된 사회적 상징을 제시한 이상블라주를 적용 시킬 수 있다.⁷¹⁾

67) 나진숙 (1986), 전계서.

68) 나진숙 (1986), 전계서, pp 46~48

69) 권문순 (2008), 전계서, p 7

70) 심지섭 (2004), 전계서, p 56

3) 아상블라주 대표 작가

아상블라주 대표 작가의 경우

(1) 마르셀 뒤샹

마르셀 뒤샹은 1887년 7월 28일 프랑스의 작은 도시 블랭빌에서 태어났다⁷²⁾. 마르셀 뒤샹은 ‘사물의 재현’이라는 전통적인 회화를 부정하고 미술과 예술품이 작가의 창작 행위 없이 선택만으로도 그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선구적인 작가이다⁷³⁾.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예술품이 아닌 기성품으로써 일상용품과 구분되지 않으며, 이것은 공업생산으로 생겨난 사물을 작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레디메이드는 기존 예술에 대한 도전, 즉 반 예술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⁴⁾.

1913년 뒤샹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원형의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거꾸로 세워 조립한 「자전거 바퀴」인 <그림34>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그가 제일 처음 선보인 레디메이드로서 움직이는 첫 조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뒤샹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작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흔히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전거의 바퀴를 ‘돌려본다’는 목적으로 공간성과 시간성을 가진 현실의 물체 그 이상이 아닌, 그저 자신에게 운동감을 주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다⁷⁵⁾. 뒤샹은 바퀴와 의자라는 대량생산된 두 오브제를 융합함으로써 피카소나 브라크와 같이 무언가를 창작해내는 것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뒤샹의 이 최초의 레디메이드는 확고한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았

71) 조영진 (2004), 전계서, pp 12~13

72) 윤종근 (2006),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

73) 현수정 (2010), “마르셀 뒤샹 작품에 나타난 앤드로지니의 차용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박사학위 논문, p 1

74) 정효미 (2012), “마르셀 뒤샹의 예술 세계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16

75) 윤종근 (2006), 전계서, p 25

고, 그렇게 불리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뒤상은 이 부분에서 이미 만들어 진 의자와 자전거 바퀴를 선택해서 ‘이것도 예술이다’라고 예술가가 선언할 때 그것을 예술이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고 ‘예술가가 예술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뒤상의 반진통적인 사상은 미술사에서 레디메이드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점점 확실하게 정착되어 갔다(76).



<그림 34> 마르셀 뒤상, “자전거 바퀴”1913
(출처:THE AMERICAN CENTURY, 리사필립스 저, p125)

뒤상이 발견한 또 다른 레디메이드는 「병걸이」이다. 이것은 병 건조기로서 포도주병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인데 파리의 한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뒤상이 병 건조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대량생산품이었기 때문이고 자전거 바퀴처럼 운동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단지 실용성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즉 이것은 병을 말리는 용도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만들어 졌지만 뒤상에 의해 본래의 용도는 사라져 버리고 외관만으로 상징되는 것

76) 정효미 (2012), 전계서, pp 21~22

이다. 이 「병걸이」는 그 어떤 조합도 없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은 레디메이드로서 뒤상이 이것을 임의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 작품이 조각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한다⁷⁷⁾(그림35).



<그림 35> 마르셀 뒤상, 「병걸이」1914
 (<http://blog.naver.com/ironsound?Redirect=Log&logNo=60269710>, 2014.5.3)

뒤상의 대표적인 레디메이드 작품인 「샘」에서는 우연성의 표현이 잘 보여지고 있다(그림36). 뒤상은 작품의 창조를 기성품을 선택하는 행위로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예술적 개념에 반기를 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오브제를 작품으로 선택하였다. 이 작품은 처음엔 많은 이들에게 거부되었지만 그의 지속적인 시도로 「샘」이라고 이름 붙인 소변기의 파문까지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은 전시회 동안 보이지 않게 가려졌지만 이 작품을 통해 다양하고 확장된 미술의 형식과 개념이 탄생하였다. 또한 뒤상의 레디메이드는 오브제로서 예술의 개념을 표현에서 선택 또는 발견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장소를 바꿈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이동의 개

77) 온종근 (2006), 전계서, p.26

넘으로도 바꾸어 버렸다⁷⁸⁾. 오늘날 「샘」은 20세기의 고전적 미술작품 중 하나로써 원래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복사본만 존재한다. 「자전거 바퀴」와 「병걸이」처럼 쓰레기로 취급되어 버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6> 마르셀 뒤샹, “샘”1917
(출처:THE AMERICAN CENTURY, 리사필립스 저, p125)

78) 박성주 (2009), “현대회화에 있어서 오브제가 갖는 의미와 이론적 해석 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2

(2)아르망

아르망(Fernandez Arman,1928~2005.10.22)은 1928년 프랑스의 니스에서 태어났다. 1946년 고고학과 동양 미술을 배우기 위해 파리의 루브르 학교(Ecol de Louve)에 입학했다.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까지는 초현실주의가 시들고 다양한 추상의 물결이 만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브클랭(Yves Klein, 1928~1962)과 처음 만난 1947년부터 10년 후 아르망이 본격적인 오브제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그는 초현실주의와 추상화를 그리는 한 화가에 지나지 않았다⁷⁹⁾. 1958년부터 아르망은 도시환경의 산물인 쓰레기 등의 잡동사니들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환경인 도시 문명의 잔해를 그대로 제시하는 작업에 몰두하였으며 그는 근대 미술 이후 오브제의 등장으로 인해 깎아 내야만 했던 전통적 의미의 미술에서 불가능했던 형상을 제작하며 현대 미술의 표현 영역을 확장시켰다⁸⁰⁾.

아르망의 작업은 오브제의 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 아르망의 집적은 담배 포장지나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상자에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의 집적 대상은 사용된 물건들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물체들이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를 상기 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택되어진 오브제를 유리 상자 안에 넣어 전시하는<그림 37>과 같은 아르망의 작업은 파격적인 시도였다⁸¹⁾. 아르망의 집적에 사용되어진 오브제들은 현대의 도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산물들로 현재의 사회 문제들을 예술로 승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⁸²⁾. 이러한 현실 속 용품이나 대량 생산된 오브제의 재현이 극에 달한 <그림38>의 「장기주차

79) 김근아(2013), “캐릭터를 통한 정크아트의 현대성에 대한 연구-본인 작품 ‘슈렉 시리즈’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10

80) 이송준(2010), “누보레알리즘의 표현기법으로 아상블라주에 대한 연구-연구자 작업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81) 오재욱(2012), “이상의 형상화를 통한 불안한 현실 극복의지 표현 연구-오브제의 재생을 통한 본인의 조형작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3

82) 이송준 (2010), 전제서, p 35

장」은 1982년 파리 근교에 세워진 환경 조형물이다. 59대의 자동차들이 1600톤의 콘크리트 안에 19.5m의 높이로 쌓여져 있는 작품인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오브제인 자동차를 아상블라주 방식으로 집적시킴으로써 현대문명의 아이러니를 풍자한 아르망의 대표작품이다⁸³⁾.



<그림 37> 아르망, “쓰레기 상자”1960
(<http://cnhpark.egloos.com/9390546>
, 2014.5.6)



<그림 38> 아르망, “장기
주차장”1982
(<http://cnhpark.egloos.com/9390546>, 2014.5.6)

아르망은 이러한 사물들의 집합, 집적을 통해 어지럽거나 가늠할 수 없어 보이는 화면에도 몇 개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 반복이 전체 리듬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⁸⁴⁾. 이렇듯 아르망은 오브제들이 일상적 필요로 쓰일 때와 달리 우리의 환상에 기쁨을 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내었고⁸⁵⁾ 일상적 오브제들을 평소의 기능으로부터 분리시켜 오브제의 환상적인 힘을 증가시켰다.

83) 박관우(2013), “일상적 이미지의 재해석을 통한 조형 연구-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11

84) 김근아(2013), 전개서, p 12

85) 민병철(1998), “누보레알리즘의 오브제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2

(3)세자르

세자르(Cesar Baldaccini, 1921~1998.12.6)는 프랑스 마르세이유 출생으로 폐물 자동차의 집적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세자르는 압축(Compression)을 통해 ‘겉모양’보다는 ‘실제’를, ‘비어있음’보다는 ‘충만함’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두었고 이런 점을 미뤄 보았을 때 그의 예술은 물리적이며 핵심과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그 한계를 밝히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⁸⁶⁾ 세자르의 초기 작품은 <그림39>과 같이 주로 볼트, 너트, 철판조각 등의 각종고철들을 용접으로 덧붙이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후 1960년에 폐차된 자동차의 3대를 압축기로 찌그러뜨려 만든 작품 「자동차 압축」인 <그림40>을 ‘살롱 드 메’에 출품하여 전위미술계의 스타가 되었다⁸⁷⁾.



<그림 39> 세자르, “박귀”1954
(<http://cesarbaldaccini.blogspot.kr>,
2014.5.10)



<그림 40> 세자르, “자동차 압축”1960
(<http://cesarbaldaccini.blogspot.kr>,
2014.5.10)

세자르의 작품 「자동차 압축」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현대미술에 새로운 조각의 개념을 더하여 주었다. 압축되어 인위적으로

86) 오재욱(2013), 전개서, pp 40-41

87) 공경주(2000), “Junk Art의 표현 유형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9-30

구성된 조각은 마치 종이를 구겨 놓은 듯 심한 요철의 표면을 이루며 거칠고 파괴적인 인상을 느끼게 한다⁸⁸⁾. 이렇게 표면의 색채가 벗겨진 금속적인 질감의 표면은 인위적이면서도 자연적인 흔적을 보여주고 세자르는 이 작품 이후로도 오토바이, 상자, 캔 등 재료에 관계없이 <그림41>과 같이 압축을 통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림 41> 세자르, “압축”1962
(<http://cesarbaldaccini.blogspot.kr>,
2014.5.10)

88) 오재욱(2013), 전게서, p 42

Ⅲ. 작품제작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20세기의 아트메이크업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예술적 특성을 가진 작품 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소재를 활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 사용되는 소재는 기존의 오브제의 범위를 벗어나 아상블라주 특성의 소재인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과 더불어 제 기능을 다한 폐품을 활용하여 조형적인 아트메이크업의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아상블라주는 기존에 만들어진 물건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소비문화로 쉽게 버려지는 일상용품들을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예술적 오브제로 탈바꿈 시켜준다. 과거의 예술에 반하고 오브제의 고정관념을 허물었으며 이러한 기법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예술로 승화시켜 예술작품의 폭을 넓게 만들어 대중과의 소통이 더 쉬워졌다. 이러한 아상블라주는 다양한 예술 분야에 표현되었으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옷을 만들거나 낡은 쇠붙이와 같은 폐기물로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가치를 잃은 쓸모없는 폐품이 아니라 새로운 용도, 즉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오브제로 사용되어 폐품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 폐품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작품 제작을 통해 지나친 소비문화 사회를 꼬집고 동시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환경 예술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작품제작 방법은 환타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소재 중 옷걸이, 계란껍질, 계란 판, 전선, 전자 회로, 알루미늄 캔, 망사

스타킹, 잡지, 휴지, CD, 일회용 접시 등을 사용하여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을 완성하였고, 아상블라주의 조형적 기법을 활용해 입체감을 부여해 작품을 제작하였다.(표 1)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

작품명	표현 기법	표현 특성	사용된 주 소재	색채	일러스트
작품 I	환상적 집합	일상성	옷걸이 스티로폼 볼	Purple Blue Sky blue Silver	
작품 II		일상성	계란 껍질 계란 판	Brown Ivory White gray	
작품 III	축적	우연성	휴지	Pink Purple Green	
작품 IV		물질성	잡지	Orange Yellow Red	
작품 V	구성적 집합	사회성	전선 회로 전자 부속품	Gold Blue Red Green	
작품 VI		물질성	폐 CD	Cyan Blue Navy Silver Orange	
작품 VII	철폐물의 집합	우연성	알루미늄 캔 망사 스타킹	Silver Black Magenta	
작품 VIII		사회성	일회용 접시 시계 바늘 병뚜껑	Gold Black	

2. 작품제작

1) 작품 I - 'Galaxy'

(1) 작품설명



작품 I - 'Galaxy'는 아상블라주의 일상성이라는 소재의 특성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쓰임을 다한 망가진 옷걸이와 스티로폼 볼을 활용하여 헤어 장식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색을 칠한 스티로폼 볼을 구조를 변형시킨 옷걸이에 끼워 행성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은하수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Purple색과 Sky blue색의 수성 물감을 활용해 아이 메이크업과 헤어라인 부분의 메이크업 디자인을 하였으며 이마 부분에 작은 스티로폼에도 동일한 색을 입혀 오브제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피부 톤에 맞게 표현해준다.
- ② Purple색과 Sky blue색 수성물감으로 눈, 이마, 얼굴 부분을 칠해 그라데이션 시켜준다.
- ③ 브러쉬를 이용해 눈 앞머리와 헤어라인 부분을 선으로 그려 넣어준다.
- ④ 작은 스티로폼을 이마 위에 부착시켜준 후, 헤어 구조물을 고정시켜준다.

작품 I는 옷걸이의 변형과 스티로폼 볼로 헤어 장식을 완성한 작품으로 내용은 <표 2>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 2> 작품 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Galaxy
표현 기법	환상적 집합
표현 특성	일상성
재료	옷걸이, 스티로폼 볼 (大,小)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물감,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스틱, 인조 속눈썹
색채	



<그림 42> 작품 I -Galaxy

2)작품VI-‘줄탁동시(峯啄同時)’

(1) 작품설명



작품 VI-‘줄탁동시(峯啄同時)’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 어미 새가 바깥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게 부리로 껍질을 쪼는것을 탁 이라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동시에 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빠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넘쳐나는 폐기물들을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현대 사회의 환경문제를 깨어야 한다는 의미로 페인팅 기법으로 새의 형상을 표현하고 계란 껍질이 오브제로 어우러져 메이크업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계란 판을 사용하여 조형적인 헤어 장식을 표현하고, 주로 Brown계열의 유사색을 활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작품 II 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톤과 동일하게 피부를 표현한다.
- ② 헤어라인부터 이마, 관자놀이 부분까지 Brown 색상의 수성 물감을 브러쉬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 ③ 깨진 계란 껍질을 눈 두덩이와 손목 부분에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해준다.
- ④ 입술은 Red컬러의 립스틱으로 입술 중앙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 새의 부리 모양을 표현한다.
- ⑤ 헤어 장식은 계란 판을 서로 끼어 넣어 조형적인 장식물을 만들어 준다.

작품 II는 계란 껍질과 계란 판을 이용해 ‘환상적 기법’으로 표현 하였으며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이 정리 하였다.

<표 3> 작품 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줄탁동시(峯啄同時)
표현 기법	환상적 기법
표현 특성	일상성
재료	계란판, 계란 껍질, 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물감,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스틱
색채	



<그림 43> 작품 II-줄탁동시(峯啄同時)

3)작품 III-‘Springtime’

(1) 작품설명

작품 III-‘Springtime’은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생명이 다한 휴지에 색을 입혀 봄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었다. 아상블라주 기법 중 동일한 물체를 한곳에 모으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강박 관념을 심어주는 ‘축적’의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Pink색과 Purple색을 머금은 휴지는 봄의 기운을 물씬 풍겨주며 아이새도우 색상 또한 붉은 계열을 사용 하여 메이크업의 전체적 통일감을 주고, 눈 두덩이 부분에 립글로스를 도포하여 촉촉한 질감을 표현하였다. 휴지를 부착 후 Green색의 물감과 글리터를 포인트로 찍어 화사한 분위기를 한 층 더 연출하였다.

(2) 제작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도포한다.
- ② 붉은계열의 아이새도를 눈 두덩이와 광대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칠해준다.
- ③ Pink색 휴지를 전체적 헤어라인과 헤어 부분까지 부착한다.
- ④ 부착된 휴지 위에 글리터와 Green색상의 물감을 찍어준 후, 눈 두덩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립글로스를 도포하여 글로시한 질감을 표현한다.

작품 III은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휴지에 색을 입혀 오브제로 사용하여 메이크업에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 4> 작품 I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Springtime
표현 기법	축적
표현 특성	우연성
재료	폐 휴지, 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물감, 아이섀도, 글리터, 아이라이너, 립스틱
색채	



<그림 44> 작품 III-Springtime

4)작품 IV-‘Color fire’

(1) 작품설명



작품 IV-‘Color fire’는 색이 다른 잡지를 불꽃 모양으로 잘라 여러장을 붙인 후, 붉은 색 인조 속눈썹을 종이에 함께 부착하여 현대 사회의 지나친 소비 문화로 인해 생겨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간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작은 불씨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마치 화려한 인조 속눈썹을 붙인 듯한 느낌으로 기존의 잡지를 연상하기 어렵게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글리터와 함께 화려함을 더해 주어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메이크업을 완성하였고, 메이크업은 Orange, Yellow, Red 컬러를 주로 사용하여 난색 계열이 우리에게 주는 열정, 정열, 의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 IV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친 후, Orange컬러의 수성 물감을 콧대를 중심으로 눈 위쪽에 칠하고, 눈 아래 쪽 부분은 Yellow 컬러의 물감으로 그라데이션 시킨다.
- ②아이라인을 길게 그려준 후, 잡지로 만든 오브제를 속눈썹 라인에 맞춰 부착해준다.
- ③ 비비드한 Orange 컬러의 립스틱을 발라 전체 메이크업의 통일감을 준다.
- ④ 헤어의 경우, Orange 컬러의 헤어 초크를 이용해 색을 부여해준다.

작품 IV는 다양한 색상의 잡지를 오리고 붙여 입체적이면서도 화려한 메이크업을 표현 하였으며 구성 내용은 <표 5>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 5> 작품 IV-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제목	Color fire
표현 기법	축적
표현 특성	물질성
재료	잡지, 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물감,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스틱, 인조 속눈썹,
색채	



<그림 45> 작품 IV-Color fly

5)작품 V-‘Electronic’

(1) 작품설명

작품 V-‘Electronic’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넘쳐나는 전자 제품의 부속품을 오브제로 사용하였으며 현대의 복잡한 사회 안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부속품을 얼굴전체에 부착시켜 구성하였다. 전자 기기가 현대 사회를 지배는 시대적 흐름을 지적하고 사람마저도 기계에 지배당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Gold컬러의 수성 물감을 얼굴과 머리 어깨까지 도포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이미지는 정면보다 특면이 인체의 라인을 잘 보여줄 수 있어 측면으로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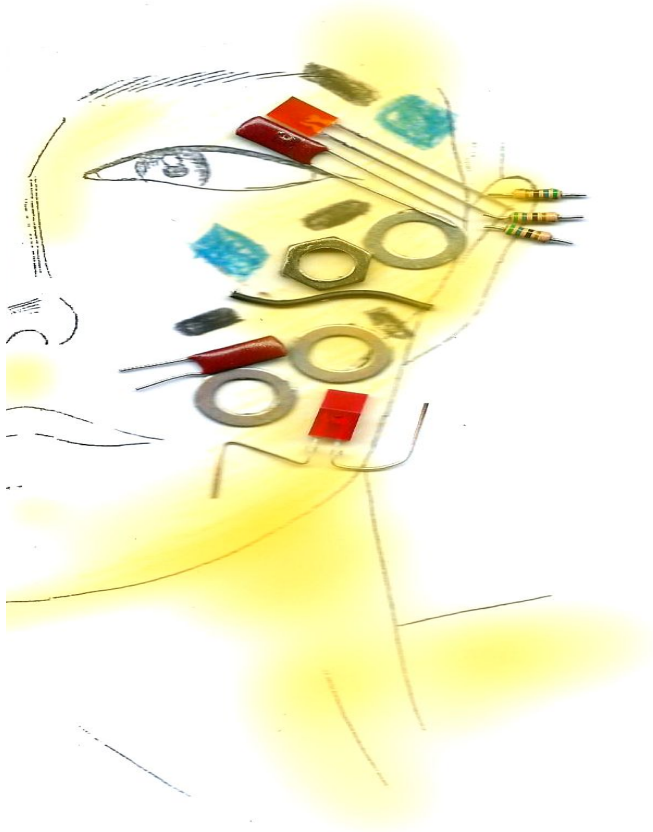

작품 V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얼굴과 머리 전체에 Gold컬러의 물감을 도포해준다.
- ② 전자 부속품을 얼굴 측면 부분에 부착한다.
- ③ 컷바퀴 부분에 부속품을 나란히 배열해준다.

작품 V는 전자 부속품과 전선을 부착하여 제작하였으며 내용은 <표 6>과 같이 정리 하였다.

<표 6> 작품 V-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Electronic
표현 기법	구성적 집합
표현 특성	사회성
재료	전자 회로 칩, 전선, 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물감
색채	



<그림 46> 작품 V-Electronic

6)작품 VI-'Flash

(1) 작품설명


작품 VI-'Flash'는 디지털 시대의 발달로 쉽게 버려지는 폐CD를 구성적 집합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 제작을 하였으며, 구성적 집합이라는 것은 현대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체를 집합시켜 물질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한 순간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용품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CD의 반짝이는 표면을 아트 메이크업의 오브제로 사용하여 빛나는 형상을 나타내었다. 아이 메이크업의 색상은 Silver와 Blue 아이새도우를 사용하여 CD표면에서 느껴지는 색감을 표현한 작품 제작을 하였다. 또한, 헤어의 장식으로 폐CD 여러장을 이어 붙여 표현하였다. 작품 V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균일하게 표현한다.
- ② Silver 아이새도우를 눈 두덩이에 도포 후, Blue 컬러의 물감으로 콧대와 눈썹 위의 부분까지 칠하여 준다.
- ③ 깨진 CD의 조각들을 헤어라인 부분에 부착시켜준다.
- ④ 다양한 CD의 모음을 헤어 장식으로 고정시켜준 후, orange 컬러의 립스틱으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작품 VI은 최첨단 시대의 쏟아져 나온 폐CD를 헤어 조형물과 메이크업의 오브제로 사용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구성 내용은 <표 7>과 같이 정리 하였다.

<표 7> 작품 V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Flash
표현 기법	구성적 집합
표현 특성	물질성
재료	폐 CD,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물감,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스틱, 인조 속눈썹
색채	



<그림 47> 작품 VI-Flash

7)작품 VII-‘Stuck‘

(1) 작품설명



작품 VII-‘Stuck‘은’ 알루미늄 캔과 망사스타킹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알루미늄 캔을 압축시켜 망사 스타킹에 넣어 쉽게 잊혀지고 버려지는 소비문화 속에 갇힌 현실 세계를 표현하고자 헤어의 조형적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망사 스타킹을 스텐실기법으로 이마 부분에 찍어 메이크업을 디자인 하였고 아이 메이크업의 경우 Silver 새도우를 눈 두덩이에 펴 바른 후, 아이라인의 꼬리 모양 또한 그물망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VI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도포 후, 망사스타킹을 이마 부분에 고정하여 Black 컬러의 물감을 스펀지를 이용해 찍어준다.
- ② Silver 아이새도우를 넓게 펴 발라 준 후,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홀 라인 과, 아이라인을 그려준다. 아이라인의 꼬리를 물고기 모양으로 그려준다.
- ③ Magenta 색상의 블러셔로 직선 형태의 블러셔를 표현한다.
- ④ 립 메이크업은 Silver 컬러의 수성 물감으로 채워준다.
- ⑤ 망사스타킹에 넣은 알루미늄캔을 헤어 장식으로 고정시켜준다.

작품 VII은 철편물 소재인 알루미늄 캔의 압축과 망사스타킹의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표현하였으며, 구성 내용은 <표 8>과 같이 정리 하였다.

<표 8> 작품 V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Stuck
표현 기법	철폐물의 집합
표현 특성	우연성
재료	맥주 캔, 망사 스타킹, 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물감,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스틱, 인조 속눈썹
색채	



<그림 48> 작품 VII-Stuck

8)작품 VIII-‘Gold clockwork’

(1) 작품설명



작품 VIII-‘Gold clockwork’는 지나친 일용품의 사용이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불러오면 결국 지구의 시간은 멈춘다는 의미로 일회용 접시를 이용해 시계의 형상을 표현하였고 고철 소재의 병뚜껑을 활용하여 시계의 톱니바퀴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헤어 장식의 경우 일회용 접시의 금색 락카를 칠한 후, 시계 바늘을 꽂아주어 시계의 형태를 완성하였으며, 메이크업 전체적 디자인은 톱니바퀴를 따라 흘러가는 이미지를 기하학 형태로 그려 넣어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VII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피부톤에 맞게 표현한다.
- ② 병뚜껑을 이마부분에 부착한다.
- ③ 병뚜껑을 따라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점과 선의 형태를 기하학 적으로 표현해준다.
- ④ 눈 아래 부분은 점의 크기를 다르게하여 점진적 리듬감을 부여한다.
- ⑤ 일회용 접시의 헤어 구조물을 고정시킨다.

작품 VIII은 일회성인 접시와 고철 소재의 병뚜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작품으로, <표 9>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 9> 작품 VI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Gold clockwork
표현 기법	철폐물의 집합
표현 특성	사회성
재료	일회용 접시, 시계바늘, 병뚜껑, 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물감, 아이라이너, 락카
색채	



<그림 45> 작품 VIII-Gold clockwork

V. 결론

아상블라주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에서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적 소재, 일상 용품, 또는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사용되어 하나의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오브제의 등장으로 지나친 소비문화와 일회용품의 남용으로 인해 쓰레기양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본 기능을 다하여 쓸모가 없어진 용품들을 활용하여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의 오브제로 접목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을 창조해내고, 더 나아가 광범위한 오브제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 외 전문서적과 연구논문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와 아상블라주의 기법과 소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에 폐품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을 하였다.

연구 범위는 아상블라주의 조형적 기법과 특성을 고찰하여 그 특성들이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의 다양한 기법 중 오브제 기법에 맞게 표현하여 다양한 아트 메이크업을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기능을 상실하고 버려지는 용품들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조금 더 경제적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여 사회적 문제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새로운 오브제를 제안하는데 본 연구를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트 메이크업의 종류를 인체의 표현되는 영역의 비율에 따라 페이스 페인팅,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으로 총 3가지로 분류하였고, 현대 사회에서의 아트 메이크업은 단지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

다.

둘째, 아상블라주에 대해 미술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선행연구에 의해 아상블라주 기법을 환상적 집합, 축적, 구성적 집합, 철편물의 집합으로 분류하였다. 환상적 집합은 인간의 잠재된 의식에서 표현되는 상상력을 일으켜 인간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물체를 집합 시킨 것이고, 축적은 단순히 물건을 모아서 쌓는 개념을 벗어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재를 집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표현의 방법이다. 구성적 집합은 현대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체를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못, 판자, 쇠 조각 등의 물질들이 주로 사용되며, 철편물의 집합은 공업 생산품이 넘쳐나는 도시의 소비 산물을 압축하거나 용접해 새로운 조형의 형태를 표현한다.

이러한 기법들을 토대로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분석하여 개체의 현실적 의미를 잃게 하여 작가가 형식적으로 오브제를 배치하고 그 재료들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기능과 용도를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특징을 가진 물질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품들을 집적하거나 병렬하여 일상적인 것과 연결하는 특성의 일상성, 인위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우연히 배열되어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우연성, 산업 사회속에서 발생하는 폐품, 공업용 생산품들을 작가의 시각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사회성으로 분류가 되었다.

다.

셋째, 분석한 아상블라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총 8점의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가진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II는 인간의 경험과 잠재 의식을 통해 작가의 의도에 맞게 배열하는 환상적 집합 기법으로 일상성의 특성을 가진 소재를 활용해 아상블라주의 작품이 완성 되었으며, 스티로폼 볼, 옷걸이, 계란 껍질, 계란 판을 얼굴에 오브제로 부착하였고, 헤어의 조형적인 장식물을 표현하여 좀 더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III,IV 물체들을 나란히 배열하거나 차곡차곡 쌓아 표현한 축적 기법의 작품으로 작품III의 경우 우연적으로 색을 입힌 휴지를 헤어라인과 목선에 맞춰 한 소재의 반복적 리듬을 표현하고, 작품IV는 잡지라는 물질의 소재를 자르고 붙여 물질의 본 기능을 알아볼 수 없게 컬러감을 화려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V,VI은 구성적 집합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전자 부속품들을 나열하여 붙이거나, 깨트려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VII,VIII은 철판의 집합 기법으로 고철이나 알루미늄, 철 소재를 가진 물체들을 압축하거나 배열하여 소재를 강조하였으며, 지나친 소비문화를 질타하는 일회용품을 헤어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좀 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 제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폐품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아트 메이크업의 페인팅 기법과 함께 폐품 소재의 오브제를 얼굴에 부착하여 입체적인 아트 메이크업을 완성하였고, 헤어 장식에도 폐품 소재를 활용하여 아상블라주의 특징인 조형성을 헤어 장식을 통해 표현하였다. 제 기능을 다한 폐품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아트 메이크업 작품 안에서 오브제로 빛을 발하였다.

아상블라주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더 깊게 분석하지 못하고 특성을 분류하는데 있어 모호함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하지만 아상블라주라는 미술사조를 통해 환경오염이나 산업사회의 폐기물 처리 문제들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아상블라주 소재를 활용해 더욱 더 독창적이고 다양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이 선보여지길 바라고, 모든 사물의 예술적 가치는 아티스트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더 폭 넓고 다양 소재의 연구가 더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대영 (1999). 한국분장예술, 서울:지인당
- 강명주 (2008). “눈 화장에 따른 형태 변화와 이미지 연구-10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현신 (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간미술 편 (1981).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중앙일보사
- 공경주 (2000). “Junk Art의 표현 유형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대웅 (2007). 디자인.공예대사전, 서울:한국사전연구사
- 곽은미 (2011). “초현실주의에 있어서의 오브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문순 (2008). “목재의 아상블라주(Assemblage)기법을 이용한 조형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아 (2013). “캐릭터를 통한 정크아트의 현대성에 대한 연구-본인 작품
‘슈렉 시리즈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임지영 (2012). “현대 미술이 응용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8(3), pp 57-72
- 김양은, 이미희, 송미영, 김은주 (2009). ART MAKE UP, 파주:광문각
- 김영경, 선정희 (2004). “바디 아트의 표현 형태 및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논문집 26, pp 291-307

- 김영숙 (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나영순, 노효경, 이종란, 이현주 (2006). ART MAKE-UP, 서울:예림
- 김영희 (2001). 토털메이크업, 서울:정문각
- 김지은 (2007). “앙리 마티스 작품을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진숙 (1986). “Assemblage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은선 (2009).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기법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철 (1998). “누보레알리즘의 오브제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바이잉 (2009). 지도로 보는 세계미술사, 서울:시그마북스
- 박관우 (2013). “일상적 이미지의 재해석을 통한 조형 연구-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주 (2009). “현대회화에 있어서 오브제가 갖는 의미와 이론적 해석 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 (2007). “오브제를 활용한 미술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신 (2008). 디지털아트 페인팅, 서울:한언
- 심지섭 (2004). “실내디자인 재료에 있어 오브제(obget)활용에 관한 연구-아쌘블라쥬(Assemblage)의 영향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인영, 신원선, 안성준 (2010). Art make up design, 서울:훈민사
- 오재욱 (2012). “이상의 형상화를 통한 불안한 현실 극복의지 표현연구-오브

제의 재생을 통한 본인의 조형작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온종근 (2006).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경희 (1985). “현대조각을 통해서 본 아쌍블라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규리 (2011). “입체주의적 꼴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송준 (2010). “누보레알리즘의 표현기법으로 아상블라쥬에 대한 연구-연구자 작업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유나 (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웅 (1999). “현대 미술속에 나타난 오브제(obget)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 (2013).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 (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이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미 (2006). “바디아트의 질감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효미 (2006). “마르셀 뒤샹의 예술 세계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진 (2004). “현대미술의 Assemblage 양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민령 (2007). “바디페인팅의 회화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독립 장르 구

축방향물색”,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명숙 (2011). 마귀아주 예술, 서울:청구문화사
현수정 (2010). “마르셀 뒤샹 작품에 나타난 앤드로지니의 차용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외문헌

H.H Arnason (1968). History of Modern Ar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Micle Ragon(1963)

인터넷 자료

<http://naver.com/toqur1219> (검색일자, 2014.5.5)
<http://naver.com/nailatti> (검색일자, 2014.5.5)
<http://sdftrw.tistory.com/m/post/1097> (검색일자, 2014.5.5)
<http://naver.com/kachi6292> (검색일자, 2014.5.5)
<http://naver.com/saeneul2005> (검색일자, 2014.5.5)
<http://naver.com/hermoso2079> (검색일자, 2014.5.5)
<http://www.superstock.com> (검색일자, 2014.5.12)
<http://gomaver.tistory.com> (검색일자, 2014.5.12)
<http://funnyartpictures.com> (검색일자, 2014.5.12)
<http://passion4travel.tistory.com> (검색일자, 2014.5.12)
<http://naver.com/replica> (검색일자, 2014.5.18)
<http://www.craigtracy.com> (검색일자, 2014.5.18)

<http://naver.com/0429s> (검색일자, 2014.5.18)
<http://naver.com/qudtlsdusdn0> (검색일자, 2014.5.18)
<http://naver.com/byeyouandme> (검색일자, 2014.5.18)
<http://naver.com/ydpat33239> (검색일자, 2014.5.18)
<http://naver.com/h3133712> (검색일자, 2014.5.18)
<http://naver.com/yichengpark> (검색일자, 2014.5.18)
<http://naver.com/comphictist> (검색일자, 2014.5.18)
<http://naver.com/yht8110> (검색일자, 2014.4.28)
<http://naver.com/moonlove26> (검색일자, 2014.4.28)
<http://naver.com/purruraa> (검색일자, 2014.4.28)
http://naver.com/park_parker (검색일자, 2014.4.28)
<http://www.artregister.com> (검색일자, 2014.5.20)
<http://farisfaris.com/louise> (검색일자, 2014.5.20)
<http://www.artvalue.com> (검색일자, 2014.5.3)
<http://naver.com/yc510> (검색일자, 2014.5.3)
<http://naver.com/ironsound> (검색일자, 2014.5.3)
<http://cnhpark.egloos.com/9390546> (검색일자, 2014.5.6)
<http://cesarbaldaccini.blogspot.kr> (검색일자, 2014.5.10)

ABSTRACT

A Study on Art Make-up with the techniques Assemblage

Park, So Ra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and industrial technology in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o human lives and be prosperous. However, the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as a major source of pollution of the Earth and humanity to come, the reality of the threat, not until the level of pollution is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to be solved to recognize the current thought to be a major problem.

This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increasingly larger, cyclical activity is required to recycle and utilize these materials in art work I make and the critique of industrial society and the reform of consciousness giving a reminder. As such the use of art in the field is focused on salvage, most common zeitgeist of 'assemblage (Assemblage)' has emerged. Assemblage is 'gathering', 'set', 'assembly'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substances to produce three-dimensional works by figurative and the material in our ready-made and easy to be around

together and make things work speaks Misc. This technique blends with a variety of formative arts, but art shows attributes combined make up the field of art and has difficulty discussing value. The art of make-up and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y being a bit more use it as a creative and unique artist's intention to meet this requirement is to make a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used to make objects of a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tilizing the scavenger assemblage techniques and utiliz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ve works of art make-up and production. The limited existing objects in the area to escape the everyday goods that take advantage of decorative art of make-up to suggest the infinite design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erform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methods and theoretical background to the analysis of the preceding paper was established, taking advantage of the various salvage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ssemblage was made to fit the work.

Information about the work of the work I, II potential human consciousness which are arranged according to the artist's intention to take advantage of a fantastic set of techniques assemblag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erydayness of the work was completed. Styrofoam balls, hangers, egg shells, eggs are attached to the face plate, but as an object, hair ornaments and figurative representations of three-dimensional and a more figurative work was completed.

Work III, IV build step by step representation of an object or accumulated lists of techniques intended to work without work incidental cases of III

with colored tissue paper to match the hair line to express the rhythm of repetitive work. The magazine named one III cut and paste of the original material to be able to recognize features a gorgeous representation of keolreogam work.

Work V, VI set of techniques utilizing the constructive work of the modern society attach accessories to list, or were made kkaeteu bothering our work.

Work VII, VIII technique is a set of elimination of water and aluminum scrap, iron or compress an array of objects with emphasis on the material was criticized by consumer culture, and using disposable products for hair decoration of the awakened awareness of more environmentally that work. Through such work production results were as follows.

Assemblage and a deeper analysis due to a lack of relevant data does not attribute a classification of ambiguity is part of a downer namjiman, assemblage art yarns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waste disposal problems of industrial society can think about it once again. Even after taking advantage of a unique and diverse assemblage art works express hopes up of all things artistic value that you can give an artist is recognized by the broader and more diverse study of hope come true.